

임실N장미축제 현장 이벤트 대흥행

천하제빵 팝업스토어·체험 프로그램·고향사랑기부 조기 달성 등 열기 후끈

임실군이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 '2026 임실N장미축제'가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효과까지 더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축제 기간 운영된 '천하제빵 팝업스토어'는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며 축제의 대표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화제의 방송 프로그램 MBN '천하제빵'과 임실군 대표 특산물인 '임실N치즈'를 접목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 임실만의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천하제빵' 최종 경연에서 6위에 오른 김진서 파티시에가 임실 모짜렐라와 고다치즈를 활용해 개발한 '임실N치즈 부리타브레드' 나눔 행사를 진행해 큰 화제를 모았다.

축제 셋째날인 30일에는 김진서 파티시에와 '천하제빵' 최연소 참가자로 화제를 모은 김규진 파티시에가 소속된 '한국영세프요리단'이 참여해 특별 이벤트가 열려 축제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현장에서는 임실치즈를 활용해 베이킹 시연과 시식 행사, 롤케이크 이벤트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임실군이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 '2026 임실N장미축제'가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효과까지 더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군은 이와 함께 축제장 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특히 기존 답례품인 임실N치즈와 유제품, 농특산물 외에도 현장 기부자에게 임실N치즈피자와 장미꽃을 추가로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같은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이번 기부부는 물론 임실군 지정기부 2호 사업인 임실군 양궁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 참여가 크게 늘었다.

당초,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모금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축제 마지막 날인 5월 31일 목표 모금액 5,000만원을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축제의 열기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축제현장에서 함께 마련된 '임실엔TV' 이벤트 부스에서는 군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행운의 롤케이크'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맞춤형 경품 지급과 팝업스토어 이벤트가 더해지면서 '임실엔TV' 구독자 수가 약 2%정도 증가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효과를 거뒀다. /임실=진홍영 기자

장마·폭염 대비 선제 대응

남원시, 노인시설 안전점검·취약노인 보호 총력

남원시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여름철 폭염 시기를 앞두고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총 503개소의 경로당을 비롯해 노인요양복지시설(1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36개소), 장기요양기관(31개소), 노인복지관(2개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3개소),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특성과 여름철 기후 위험요인에 맞춘 맞춤형 점검과 예방조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노인요양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총 59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대비 상태 △감염병 및 급식위생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 안전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하고 있다. 5월 28일까지 자체 점검을 완료하고, 현재는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를 위해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23개 읍면동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

관 3개소에 전파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 확인 강화 △상황보고 체계 유지 △폭염·호우 대응 수칙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5월부터 9월까지를 중점관리기간으로 지정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중심의 선제적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로당 503개소는 폭염 및 폭우 집중기인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기존 평일 09시~18시에서 해당 기간동안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09시~21시까지 개방해 무더위로부터 노년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방가 사전 점검 등도 함께 진행 중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에서는 수행인력 교육을 비롯해 어르신 대상 폭염 대응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안내, 비상연락망 점검, 후원물품 연계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 5,724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는 남원시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5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여름철 폭염 및 호우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실외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 조정과 휴식시간 확대, 폭염 안전물품(모자, 팔도시, 생수 등)을 지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누리시민' 20만 명 돌파

제96회 춘향제·tvN 꽃보다 청춘 홍보 효과 특출

남원시가 생활인구 확대와 관계인구 기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남원누리시민' 가입자가 20만 1,101명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 관광이나 일회성 방문을 넘어 남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외부 인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로, 이번 20만 명 돌파는 다양한 관광·홍보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총 1만 3,264명이 신규 가입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제96회 춘향제와 연계해 추진한 '남원누리시민주안 여행경비 지원

사업'과 최근 방영된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리미티드 에디션'의 홍보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20만 명 돌파를 계기로 누리시민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관광·축제·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에서 체류, 숙박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로 연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6월 가족 참여형 원데이 클래스 운영

순창발효관광재단은 6월 한 달간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6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효를 비롯해 쿠키, 아로마, 반려동물, 원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콘텐츠로 구성됐

으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해 색다른 경험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다.

6월 원데이 클래스는 매주 토·일요일 운영되며 △교육인형극 △떡화본 만들기 △발효 꽃감 샌드 만들기 △미니 발효 피자 만들기 △아로마 큐브 발레기피제 △감정 아로마 향수 만들기



△반려동물 사취미 만들기 △미생물 곰팡이 촉촉반 만들기 △미생물 숲 테라리움 △발효세라미 화분 만들기 등 총 1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소방서, 여름철 벌쏘임·뱀물림 사고 주의 당부

순창소방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야외활동과 농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벌쏘임 및 뱀물림 사고 예방과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순창지역 벌쏘임 환자는 2023년 14명, 2024년 40명, 2025년 33명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6월 이후부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뱀 물림 환자는 2023년 8명, 2024년 4명, 2025년 7명이 발생했으며, 주로 여름철과 추석 전후 벌초·성묘 기간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냉찜질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호흡곤란, 두드러기, 어지럼증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안



전거리를 유지한 채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움직임을 최소화해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추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 상태에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입으로 독을 빨아내거나 상처를 절개하는 행위, 강하게 묶는 지혈대 사용은 오히려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삼가야 한다. 순창소방서는 벌초, 농작업, 등산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주변을 충분히 살핀 뒤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순창군이 지역 산업구조와 경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로, 순창군이 매년 시행하는 사업체조사를 대체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총조사이다. 순창군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전화·팩스 등 다양한 스마트 조사 방식도 병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온라인 조사는 관내 사업체 가운데 약 10%를 우선 실시사업체로 지정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가데이터가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순창군 내 사업체 3천여개소이며,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 공통항목 12개와 산업별 특성항목 26개 등 총 38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자료 처리와 분석 과정을 거쳐 2026년 12월 잠정 공표되며, 2027년 6월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지역산업구조 분석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양파 재배 지원사업 추진

임실군이 원예특작 작목인 양파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군은 총사업비 3억1,250만원을 투입해 관내 양파 재배농가와 작목반을 대상으로 종자와 멀칭비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고품질 양파 생산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